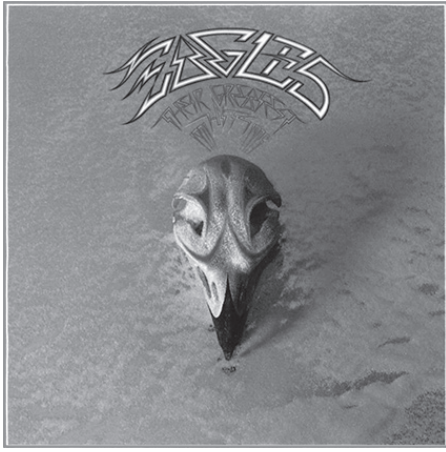


이글스, 미국내 최다 앨범 판매

미국 컨트리 록밴드인 '이글스'가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이 가지고 있던 미국 내 최다 앨범 판매량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 20일 미국음반산업협회(RIAA)에 따르면 1976년 발매된 이글스의 '테어 그레이트 히츠(Their Greatest Hits) 1971-1975'가 최근 판매량 업데이트 결과, 2006년 집계 당시 29X 플래티넘에서 900만 장 늘어난 '38X 플래티넘'을 기록해 마이클 잭슨의 '스틸러' 기록(33X 플래티넘)을 넘어섰다고 전했다.



▲ '38X 플래티넘'으로 미국 내 최다 앨범 판매량을 기록한 이글스의 앨범 'Their Greatest Hits 1971-1975'(위 사진), 아래는 1997년 당시 이글스

이글스를 대표하는 '호텔 캘리포니아'는 '테어 그레이트 히츠 1971-1975'에 포함돼 있지 않다. '테어 그레이트 히츠 1971-1975' 발매 이후인 1977년 발표됐기 때문이다.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는 26X 플래티넘으로 하나였다. 1998년 로큰롤 명예의 전당에 등재됐다.

'스틸러'에 이어 판매량 3위에 올랐다.

RIAA의 플래티넘 집계는 앨범 당 100만 장 팔린 것을 기준으로 하며 38X 플래티넘이란 앨범과 스트리밍·다운로드의 합계가 3,800만 장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앨범 판매보다 스트리밍이나 음원 다운로드가 대중음악 소비의 주된 경로가 된 추세를 반영해 2013년부터는 1천500회 스트리밍과 10회 다운로드를 앨범 1장 판매와 맞먹는 것으로 해 집계하고 있다.

1971년 로스앤젤레스에서 결성된 이글스는 이후 이후 5번의 싱글차트 1위, 6번의 그래미 상, 5번의 아메리칸 뮤직 상, 6번의 앨범 1위를 차지하는 등 1970년대의 가장 인기 있는 그룹의

아시아 아르젠토, 미성년 성폭행 진실 공방



미투 운동을 촉발시킨 이탈리아 여배우 아시아 아르젠토(왼쪽 사진)가 배우 지미 베넷과 성폭행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두 사람은 영화 '이유있는 반항'에서 모자(母子) 관계를 연기한 바 있다.

뉴욕타임즈는 최근 아시아 아르젠토가 미성년자였던 지미 베넷을 성폭행했다고 보도했다. 아시아 아르젠토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지미 베넷에게 거액을 건넸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위기에 빠졌다. 더구나 지난 22일, 연예 전문매체 TMZ가 두 사람이 침대에 함께 있는 사진과 성관계 사실을 증명하는 문자 메시지까지 공개되며 사건은 일파만파 커졌다.

지미 베넷(오른쪽 사진)은 "아시아 아르젠토가 (미투운동 당시) 희생자를 자처해 내 트라우마가 다시 떠올랐다. 그간 입장을 밝히지 못한 것은 공개적으로 이야기되는 것이 부끄럽고 두려웠기 때문"이라며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미 베넷 역시 아시아 아르젠토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편지를 쓰는 등, 애정을 고백했다는 증거가 발견되며 양측의 진실 공방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조지 클루니, 남자 배우 수입 1위

세계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남자 영화배우는 조지 클루니(57, 사진)로 밝혀졌다.



지난 22일 '포브스'에 따르면 클루니는 2017년 6월부터 1년 동안 2억 3,90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이는 여자배우 수입 랭킹 1위를 차지한 스칼렛 조핸슨 수입(4,050만 달러)보다 5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클루니의 수입은 영화보다는 대부분 사업 쪽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동업자들과 함께 만든 테킬라 회사 카사미고스를 거대 양조업체 디아지오에 팔면서 거액을 벌었다. 또한 기존 광고계약 등이 연장되면서 상당한 수입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거액의 수입을 올리면서

도 클루니는 아내 아말과 함께 총기규제 시위인 '우리 생명을 위한 행진'에 기부활동을 하는 등 활발한 사회활동으로 인기가 높다.

한편 남자 배우 중 수입 2위는 배우이자 제작자인 드웨인 존슨으로, 1억2,400만 달러를 벌었다. 그가 벌인 수익의 대부분은 영화 '주만자: 새로운 세계' 등의 출연작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3위에는 '어벤져스' 시리즈의 히어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8,100만 달러)가, 4위에는 호주 출신으로 역시 '어벤져스' 등 여러 블록버스터에 단골 출연한 크리스 헬스워스(6천450만 달러)가 이름을 올렸다. 성룡이 4,550만 달러를 벌며 5위에 올랐다.

1226호 숫자퍼즐 정답									
5	3	8	4	2	1	7	6	9	
6	4	9	7	5	3	2	8	1	
1	7	2	6	8	9	3	4	5	
7	2	5	1	3	8	4	9	6	
3	9	4	2	6	5	8	1	7	
8	6	1	9	7	4	5	2	3	
9	5	6	8	4	7	1	3	2	
4	1	7	3	9	2	6	5	8	
2	8	3	5	1	6	9	7	4	

종교 무관
주7일 예약상담

자식으로 인해 큰 재산을 날린 팔자

☎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오래 전의 어느 날 필자의 사무실에 타주에서 필자의 소문을 듣고 찾아 왔다는 중년 부인과 상담을 하게 되었다. 필자가 먼저 그 부인의 팔자를 보면서 건넨 이야기는 "타고난 팔자의 특징을 살펴보면 자수성가(自手成家) 하는 팔자가 되고 형제자매가 5남매 이상인 사주가 됩니다. 또한 창조적인 능력과 상업 예술분야의 감각이 매우 뛰어나고 여러 가지 전문 자격증 분야에서 그 능력을 발휘하는 팔자로서 자기 사업으로 크게 성공하는 사주가 됩니다."라고 말을 하니 그 부인이 아무 말도 없이 필자의 말을 듣고 있다가 약간 놀라는 얼굴로 하는 말이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모두 맞습니다. 저의 형제가 5남매입니다. 그리고 저는 전문 자격증을 3개나 가지고 있고요 그 동안 사업을 해서 재산도 꽤 모았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다. 이어서 필자가 말하기를 "그런데 현재 운세(運勢)의 흐름을 볼 때 자식들로 인해 재산 손실이 따를 수 있는 흐름이 되니 절대로 살아생전에 자식들에게 재산 상속이나 양도를 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부인이 한숨을 내쉬면서 하는 말씀이 "그런데 이미 자식들 때문에 재산을 많이 날렸습니다. 아이가 둘이 있는데 자기들이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하도 때를 써서 사업자금을 대주었는데 글썽 하는 사업마다 모두 망했습니다. 그 동안에 사업한다고 없앤 돈만 백만불이 넘습니다."라고 하소연을 한다. 이어서 필자가 건네 이야기는 "부인의 팔자에는 그래도 큰 재산이 있는 팔자가 되지만 자식들로 인해 재산을 날릴 수 있는 사주가 되므로 앞으로는 절대로 자식들에게 사업자금을 대주면 안 되고 재산을 현금의 형태가 아닌 부동산 같은 곳에 투자해 두셔야 남은 여생동안 재산이 지켜지게 될 것입니다."라고 조언해 주었던 것이다.

★ 사주명리 · 풍수 · 수맥감정 전문 ★

★ 사주명리(四柱命理) 수강생 모집 ★

평생사주 총론	직업, 사업, 재물	궁합, 애정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50%;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예약 필수</div> 714.534.4645	9618 Garden Grove Blvd., #108, Garden Grove, CA 92844
상호, 이름 작명	풍수지리 출장 감정	수맥 탐사 전문		

정교한 사주해석 전문
청해역학학술원